

보도일시 | 2025년 4월 25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무심한 틈에 피어난 감정의 버섯, 울산에서 전시로 만나다

- 울산 출신 신진작가 진주영 개인전 <버섯적 심상> 장생포 창작스튜디오131 -

○ 울산 출신 신진작가 진주영의 개인전 <버섯적 심상>이 2025년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장생포 창작스튜디오131에서 개최된다. 이번 전시는 감정의 섬세한 움직임과 내면의 변화를 ‘버섯’이라는 유기적 이미지로 풀어내며, 시각예술을 통해 삶의 미세한 틈새에 존재하는 감정의 아름다움을 포착한다.

○ 이번 전시는 설치작품 1점과 회화작품 32점, 총 33점으로 구성된다. 신작은 보이지 않는 땅속 틈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버섯의 형상을 통해, 일상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미세한 감정의 순간을 형상화한다. 특별한 사건 없이도 떠오르는 감정을 유기적 이미지로 풀어내며, 그 존재의 고유함과 삶의 본질에 대한 작가의 예술적 시도가 드러난다.

○ 주요 작업인 <Wood Wide Web>은 곰팡이를 통해 연결된 숲의 생태 네트워크 개념에서 출발한다. 자연의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인간의 내면과 감정에 비유하며, 감정의 흐름을 숲 속에서 자라나는 다양한 버섯들로 형상화한 이 시리즈는 도감 형식으로 구성되어 관객의 사유를 유도한다.

○ 장생포 창작스튜디오131은 (구)장생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전시공간으로, 울산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. 2017년 개관 이후 지역 주민에게 일상 속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.

○ 진주영 작가는 1996년 울산에서 태어나 단국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 전공을 했다. 감정과 자연, 일상과 상상을 엮는 시각예술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, 울산을

중심으로 다양한 전시 및 레지던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. 관람객은 전시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감정의 결을 다시 들여다보고, 나와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감각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.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4. 25.
